경찰청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23.(수) 10:00	누리망·방송	2022. 11. 23.(수) 10:00
담당 부서	경비국 경비과	책임자	총경 심한철 (02-3150-2056)
		담당자	경정 김만중 (02-3150-1673)

경찰, 기동대·특공대 투입하여 월드컵 거리 응원 안전관리에 만전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에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우리나라 경기일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 응원 시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하여 인파관리 등 행사장 질서유지와 대테러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팀의 1차전이 열리는 11. 24.(목)에는 전국 12개소에 4만여 명이 운집하여 거리 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어제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광화문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 11. 24.(목) 지역별 거리 응원 예상 현황

서 울	**광화문광장, 1만 5천 명**	대 구	경북대 공대식당, 200명
경 기	수원월드컵경기장, 2만 명	인 천	송도 컨벤시아, 1,000명
	수원공고 체육관, 300명	대 전	충남대 체육관, 200명
전 북	전주대 대운동장, 2,000명	충 북	충북대 공연장, 300명
	익산시 영등공원, 300명	경 북	안동대 중앙광장, 150명
	군산 나운동 주차장, 100명		영남대 학생관, 300명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경찰관 41명과 8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할 예정으로, 사전 준비단계부터 지자체·주최 측과 합동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무대 주변, 경사로 등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지자체·주최

측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폭발물 검색 등 대테러 안전 활동도 병행한다.

행사장은 구획을 나누어 인파를 분산하고, 관측조를 운영해 인파가 집결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거리 응원 종료 직후에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역별로 퇴장로를 구분하고, 인근 유흥가 등에 뒤풀이를 위한 인파 밀집시에도 기동대 등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거리 응원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 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